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건설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김 아 영
부천여자중학교

조 영 주[†]
한경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있고, 이들 관계에서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127쌍의 부부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과 아내 둘 다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을 낮게 지각하였다. 둘째, 남편의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낮았으나, 아내의 자기분화는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셋째, 남편과 아내의 자기분화가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고, 건설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남편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혼합효과가 있었다. 다섯째,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 및 아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였고, 연구의 학문적, 임상적 의의를 포함하였다.

주요어: 자기분화, 부부갈등, 건설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매개효과

* 본 논문은 김아영 (2018)의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조영주, 한경대학교 교양교육대학 조교수,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Fax : 031-678-4898 / E-mail : yjcho@hknu.ac.kr

부부갈등은 부부의 욕구, 목표 및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과 긴장상태를 말한다(한미향, 1999; Coleman, 1984). 각기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남녀가 부부가 되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갈등이 따르게 된다(류석진, 조현주, 2015). 이때, 적절한 대처행동을 하지 못해서 부부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면, 결국 가정 해체에 이르기까지 한다(이정미, 2002).

다세대 가족치료이론에서는 부부갈등과 같은 가족 내의 역기능은 가족 구성원의 자기분화가 낮을 때 나타난다고 본다(Kerr & Bowen, 2005). 부부가 자기분화 수준이 낮으면, 감정 반사적 태도를 보이거나 지나친 융합으로 인한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여 부부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Kerr & Bowen, 2005).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는 부부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을 낮게 지각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양여진, 2015; 한미향, 1999; 한영숙, 2007; Miller, Anderson, & Keala, 2004; Peleg, 2008). 이에 더하여, Kerr와 Bowen(2005)은 자기분화는 의사소통을 매개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자기분화가 높은 사람은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아서 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하여 부부가 조화로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Kerr & Bowen, 2005). 한편, 자기분화가 낮은 사람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경멸, 상처, 비난, 거부감 등을 보다 예민하게 지각하고 이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심화된다고(Kerr & Bowen, 2005).

다세대 가족체계이론을 정립한 Bowen의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부부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과와 함께 상대방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를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더하여, 자기분화,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지만, 이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및 이들 관계에서 건설적 의사소통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성차를 검증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부부갈등을 낮추기 위한 상담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부부갈등은 서로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해체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이정미, 2002). 부부갈등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최규련(1994)은 부부갈등은 성격차이, 성생활, 대화문제, 처가/시가와와의 관계, 본가/친정과의 관계, 경제문제, 자녀지도, 본인의 나쁜 습관 및 가치관 차이 등의 영역을 포함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세대 가족치료이론에서는 부부갈등과 같은 가족 내의 역기능은 가족 구성원의 자기분화가 낮을 때 나타난다고 본다(Kerr & Bowen, 2005). 자기분화는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관계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심리내적 차원은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정서적 성숙을 의미하며, 대인관계 차원은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연합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Kerr & Bowen, 2005). 구체적으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심리내적으로 사고와 감정이 균형 잡혀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으며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유연하며 적응적인 반면,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사고와 감정이 융합되어 감정반사행동이 많이 보인다(Kerr & Bowen, 2005; Skowron & Friedlander, 1998). 대인관계 차원에서 자기분화가 잘 된 사람은 스스로 책임지고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지 비난하지 않는 반면, 자기분화가 낮은 사람은 타인의 정서적 반응에 민감하여, 타인에게 밀착하여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거나 혹은 관계에서의 불편감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거리감을 둘 수 있다(Kerr & Bowen, 2005).

Kerr와 Bowen(2005)은 낮은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부부가 자기분화 수준이 낮아서 사고와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미성숙하면, 상대방에게 감정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이는 부부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부부가 자기분화 수준이 낮아서 서로 융합되어 있을 때 부부는 과잉 융합으로 인한 부담감을 갖게 되고 부부갈등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정서적 단절은 일시적으로는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숨겨져 있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날 수 있다. 경험적 선행연구에서도 자기분화는 부부갈등과 부적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이종원, 옥선화, 2015; 이해경, 이은희, 2011; 한미향, 1999; 한영숙, 2007; Peleg, 2008; Miller, et al., 2004).

부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자기분화가 자신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남편과 아내의 자기분화가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각각 지각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있다는 것이

다.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 상대방효과를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자기분화와 부부적응 및 결혼만족도와 연결지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권정란과 이인수(2006)는 자기분화가 자신과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정숙(2009)의 연구와 나남숙과 이인수(2017)의 연구에서도 자기분화가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Kerr와 Bowen(2005)은 자기분화는 의사소통을 매개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의사소통은 언어적, 비언어적 방식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교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Pietromonaco, Greenwood, & Barrett, 2004). 의사소통의 범주를 구분하는 방식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의사소통은 크게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적 의사소통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분명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타협하며 상대방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갖고 분별 있는 기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상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을 말한다(Glick, & Kessler, 1980). Satir(1988)는 자기 존중감의 세 가지 요소인 자기, 타인 및 상황을 모두 균형있게 고려할 때 일치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이들 중 하나라도 온전하지 못하고 배제되면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및 산만형의 의사소통을 보인다고 하였다. Christensen과 Sullaway(1984)는 의사소통을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

소통으로 구분하였는데,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상호 손상적 의사소통, 요구-철회 의사소통 및 상호 회피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Gottman도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을 포함하였다(Gottman & Lewenson, 1986; Gottman & Silver, 2002). 이 때,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보고되기는 했지만, 서로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황민혜와 고재홍(2010)은 건설적 의사소통은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30$ 에서 $-.63$ 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김정숙(2008)은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간에 $-.56$ 에서 $-.57$ 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기분화가 높은 사람은 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하여 부부가 조화로운 관계를 지속하는 반면, 자기분화가 낮은 사람은 건설적 의사소통은 적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여 부부갈등이 심화된다(Kerr & Bowen, 2005). 자기분화와 의사소통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종원과 옥선화(2015)는 Bowen의 다세대 가족치료이론과 Satir의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을 접목하여, 자기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일치형의 건설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반면, 자기분화가 낮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회유, 비난, 초이성, 산만과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 간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Gottman과 Silver(2002)는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과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Christensen과 Sullaway(1984)도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부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 요구-철회 의사소통이 관계의 질을 가장 크게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자기분화,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 간의 관계를 하나의 모형에서 살펴본 연구는 찾을 수 없었지만, 자기분화와 의사소통 간의 관계 그리고 의사소통과 부부갈등 간의 관계는 선행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부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지은, 2011; 어항숙, 2016; 정현숙, 2009). 특히, 김정숙(2009)은 자기분화가 건설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의사소통도 부부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류석진, 조현주, 2015). 특히, 황민혜와 고재홍(2010)은 건설적 의사소통은 부부갈등과 부적 관련이 있고, 손상적 의사소통이나 요구철회 의사소통과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부갈등과 정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자기분화와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부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김향순, 김순덕, 구명이(2014)는 기혼여성의 자기분화와 결혼만족의 관계를 부부 의사소통이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그들은 인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균형을 이루고 자아통합 수준이 높으며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및 가족 퇴행 수준이 낮을 때, 부부가 건설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이를 매개로 결혼 만족도를 높

인다고 하였다. 김정숙(2009)은 자기분화,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의 세 가지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부부의 자기분화가 자신과 배우자의 건설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은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자기분화,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과 관련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더러 성차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자기효과는 아내에 비해서 남편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상대방효과는 대체로 남편의 행동이나 특성이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내의 행동이나 특성이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에 비해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성차를 몇 가지 관점에서 설명한다. 우선, 사회화의 관점에서 남성은 과업 지향적으로 여성은 관계 지향적으로 사회화되므로, 남편은 자기 자신을 준거로 사용하는 경향이 크고, 아내는 남편에 비해서 배우자와 부부관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조영주, 2017; Thomas & Fletcher, 2003). 사회구조 이론의 관점에서 대개 사회적 권력이 강한 남성은 파트너와 관계에 덜 민감하고, 사회적 권력이 약한 여성은 파트너와 관계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남편에 비해서 아내가 배우자의 행동이나 특성의 영향을 더 받는 상대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조영주, 2017; Caughlin & Scott, 2010). 이에 더하여, 부적 특성과 관련하여 생리학적 관점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갈등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생리적으로 더 각성되고 갈등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Gottman & Levenson, 1986), 자기 자신에게 보다 집중하고 배우자나 관계의 부정적인 측면

을 인식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없기 때문에 유사하게 자기분화와 결혼만족 간의 관계에서 성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남숙과 이인수(2017)는 남편의 자기분화가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50으로 높은 관련성을, 아내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23으로 낮은 관련성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김정숙(2008)도 남편의 자기분화와 결혼만족 간에는 .41의 상관을, 아내의 자기분화와 결혼만족 간에는 .28의 상관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사이에는 유의하지만 낮은 수준의 상관이 보고되기도 하였다(이혜경, 이은희, 2011; 한미향, 1999). 상대방효과와 관련하여, 나남숙과 이인수(2017)는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결혼만족을 설명하는 정도는 중간크기(.34)인 반면, 아내의 자기분화가 남편의 결혼만족을 설명하는 정도는 작은 크기(.15)라고 보고하였다. 유사하게, 몇몇 연구에서는 상대방효과 중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반면, 아내의 자기분화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남궁임, 2009; 신현정, 2017).

자기분화가 배우자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서도 성차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는데, 김정숙(2008)은 남편의 자기분화는 아내의 긍정적 의사소통 및 부정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반면, 아내의 자기분화는 남편의 긍정적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고 남편의 부정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의사소통과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의 상대방효과와 관련하여, 황

민혜와 고재홍(2010)은 건설적 의사소통 및 손상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상대방 효과는 크기가 비슷한 반면, 요구철회 의사소통과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는 성차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남편의 요구철회 의사소통과 아내의 갈등 간의 관계가 아내의 요구철회 의사소통과 남편의 갈등 간의 관계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부갈등은 아니지만, 박영화와 고재홍(2005)도 남편의 의사소통 특히 손상적 의사소통은 아내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내의 의사소통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사하게, 김정숙(2009)은 남편의 부정적 의사소통 유형은 아내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반면, 아내의 의사소통유형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자기분화가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배우자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남편과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및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의 성차를 검증할 것이다.

가설 1.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 남편과 아내의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할 것이다. 또한, 남편의 자기효과가 아내의 자기효과에 비해 더 클 것이다.

가설 2.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대방효과: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할 것이다. 이 때, 남편의 자기 분화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아내의 자기분화가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 비해 더 클 것이다.

가설 3.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자기분화가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 자신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또한, 자기분화와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혼합효과: 남편 자기분화 → 아내 의사소통 → 남편 부부갈등; 아내 자기분화 → 남편 의사소통 → 아내 부부갈등).

가설 4.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남편과 아내의 자기분화가 배우자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각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유의할 것이다. 이 때, 남편의 특성이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하는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남편 자기분화 → 남편 의사소통 → 아내 부부갈등; 남편 자기분화 → 아내 의사소통 → 아내 부부갈등)가 아내의 특성이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하는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아내 자기분화 → 아내 의사소통 → 남편 부부갈등; 아내 자기분화 → 남편 의사소통 → 남편 부부갈등)보다 더 클 것이다.

방법

연구 절차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임의표집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지필 설문지를 작성한 후 동봉한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는 방식과,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두 방식 모두 참가자 부부 각자에게 연구 목적 및 설문 실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지필 설문지의 경우 큰 봉투 안에 작은 봉투 2개를 준비하여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작성한 후 밀봉하여 제출하게 하였고, 온라인 설문의 경우 남편과 아내 따로 모바일 링크를 보내 각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필 설문지에 응답한 참가자는 41쌍,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참가자는 105쌍이었다. 불성실하게 작성한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27쌍(종이 설문 37쌍, 온라인 설문 90쌍)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대상

최종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36.54세($SD=4.18$; 범위=28-48), 여성이 34.27세($SD=3.76$; 범위=25-46)였으며, 결혼 기간은 평균 64.02개월($SD=42.88$; 범위=1-223)이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25쌍(19.7%), 자녀 수 1명이 54쌍(42.5%), 2명이 44쌍(34.6%), 그리고 3명이 4쌍(3.1%)이었다.

측정도구

자기분화

자기분화는 Bowen의 가족체계이론과 국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혜정과 조은경(2007)이 개발한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 및 정서적 융합의 5가지 하위 척도를 포함하며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반응과 자기입장은 개인내적 차원의 자기분화를 측정하며, 정서적 단절과 타인과의 융합은 대인관계 차원의 자기분화를 측정한다. 그리고 정서적 융합은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관계적 차원을 통합한 것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6점 척도로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기입장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을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정혜정과 조은경(2007)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자기분화 척도는 .89이고 하위요인은 .69에서 .84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전체가 .91, 하위요인은 .73에서 .83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

부부갈등 척도는 최규련(1994)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부갈등 척도는 성격차이, 성생활, 대화문제, 처가/시가와와의 관계, 본가/친정과의 관계, 경제문제, 자녀지도, 본인의 나쁜 습관, 가치관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참가자 중에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지도와 관련한 문항을 제외한 33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을 많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최규련(1994)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남편의 경우 전체가 .95, 각 하위영역은 .79에서 .91이고, 아내의 경우 전체가 .95, 각 하위영역은 .70에서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경우 전체는 .95, 하위영역

은 .61에서 .91이고, 아내의 경우 전체는 .95, 하위영역은 .75에서 .91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Christensen과 Sullaway(1984)가 만든 의사소통 패턴 질문지(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CPQ)의 단축형(CPQ-Short Form, Christensen & Heavy, 1990)을 사용하였고, 이정은과 이영호(2000)가 번안한 것에서 단축형에 포함된 1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배우자와 자신 사이에 갈등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 갈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다. 각 하위척도로는 건설적 의사소통, 손상적 의사소통, 요구-철회 의사소통 및 상호 회피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적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3문항은 그대로 건설적 의사소통으로, 손상적 의사소통과 요구-철회 의사소통, 및 상호 회피 의사소통을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묶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9점 척도로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8점(아주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정은과 이영호(2000)의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건설적 의사소통이 .79, 손상적 의사소통이 .85, 요구-철회 의사소통이 .71이었다. Christensen과 Heavy(1990)의 연구에서 단축형 척도의 신뢰도는 건설적 의사소통이 .73이었으며, 요구-철회 의사소통은 .72에서 .74로 보고되었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전체의 내적 신뢰도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건설적 의사소통의 내적 신뢰도는 .66이었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내적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 실시하였고, AMOS 18.0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는 한 사람의 특성이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적용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Kenny, Kash, & Cook, 2006). 이 때,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성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Cumming(2009)이 제안한 방식을 따라 표준화 회귀계수와 95% 신뢰구간을 사용하여 성차를 검증하였다. 이에 더하여, 의사소통의 개별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대로 비표준화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인 자기분화, 부부갈등, 건설적 의사소통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각 변인들의 왜도의 절대값은 .05에서 .74로 2보다 작았으며, 첨도의 절대값은 .13에서 1.09로 7보다 작게 나타나 분석에 사용한 변수가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5).

주요 변인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결혼 기간은 자기분화, 부부갈등, 건설적 의사소통 및 역기능적 의사

표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9	M	SD
1. 결혼기간	-									64.02	42.88
2. 자기분화_남편	.01	-								2.87	.59
3. 자기분화_아내	-.08	-.36***	-							2.70	.60
4. 부부갈등_남편	.00	-.60***	-.30**	-						1.84	.58
5. 부부갈등_아내	.14	-.36***	-.44***	.55***	-					1.88	.61
6. 건설적 의사소통_남편	-.12	.34***	.08	-.35***	-.33***	-				5.68	1.32
7. 건설적 의사소통_아내	-.09	.38***	.27**	-.49***	-.56***	.44***	-			5.58	1.59
8.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편	.01	-.52***	-.14	.65***	.52***	-.56***	-.42***	-		2.11	1.42
9. 역기능적 의사소통_아내	.03	-.32***	-.34***	.44***	.72***	-.32***	-.57***	.51***	-	2.34	1.52

주. N=127. ** $p < .01$, *** $p < .001$.

소통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남편의 자기분화는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r = -.60, p < .001$), 자신의 건설적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r = .34, p < .001$),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r = -.52, p < .001$). 또한 남편의 자기분화는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r = -.36, p < .001$),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r = .38, p < .001$), 아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r = -.32, p < .001$), 아내의 자기분화는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 = -.44, p < .001$), 자신의 건설적 의사소통과는 정적 상관($r = .27, p < .01$),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r = -.34, p < .001$). 아내의 자기분화는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r = -.30, p < .01$),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r = .08, p > .05$; $r = -.14, p > .05$). 남편

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과는 부적 관련이 있었고($r = -.35, p < .001$),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정적 관련이 있었으며($r = .65, p < .001$),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과는 부적 관련($r = -.49, p < .001$) 및 아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는 정적 관련이 있었다($r = .44, p < .001$). 마찬가지로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도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과는 부적 상관이($r = -.56, p < .001$), 역기능적 의사소통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r = .72, p < .001$),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과는 부적 상관이($r = -.33, p < .001$),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는 정적 관련이 있었다($r = .52, p < .001$).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하고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으며, 표 2에서는 각 경로의 회귀계수와 유의도 및 성차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기효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자기분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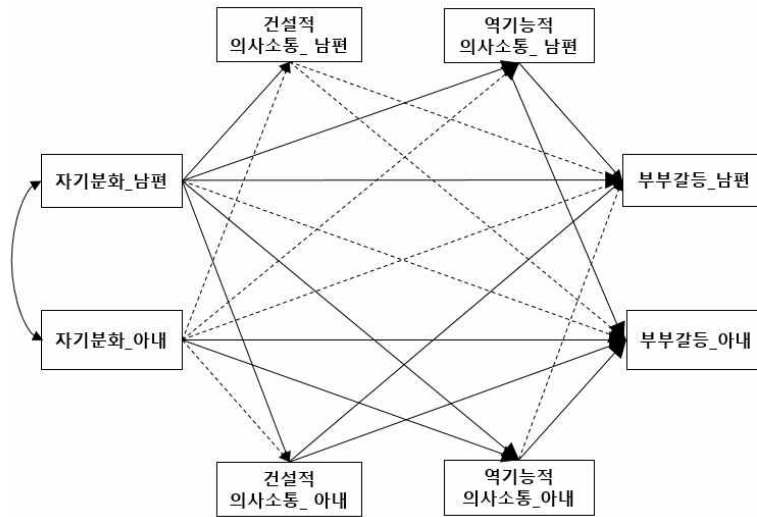


그림 1. 부부의 자기분화,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의 관계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경로와 아내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부부갈등에 이르는 경로는 모두 유의하였고($\beta = -.301, p < .001$; $\beta = -.236, p < .001$),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Delta\beta = -.063, p > .05$). 남편의 자기분화가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였고($\beta = .361, p < .001$), 아내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beta = .152, p > .05$), 이들 관계에서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Delta\beta = .201, p > .05$). 남편의 자기분화가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고($\beta = -.543, p < .001$), 아내의 자기분화도 아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며($\beta = -.260, p < .001$), 이들 관계에서 남편의 자기효과가 아내의 자기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Delta\beta = .283, p < .05$).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이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beta = -.098, p > .05$),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이 아

내의 부부갈등에 이르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183, p < .05$),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Delta\beta = .085, p > .05$).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경로도 유의하였고($\beta = .457, p < .001$) 아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도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 = .452, p < .001$),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Delta\beta = .005, p > .05$).

직접경로에서 상대방효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부부갈등에 이르는 직접경로와 아내의 자기분화가 남편의 부부갈등에 이르는 직접경로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44, p > .05$; $\beta = -.074, p > .05$).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였고($\beta = .334, p < .001$), 아내의 자기분화가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beta = -.047, p > .05$), 이들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아내가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는

표 2. 경로분석에서의 회귀계수 및 성차

효과/ 예측변인	준거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95% CI		차이 ($\Delta\beta$)
					lower	upper	
자기효과							
자기분화_남편	→ 부부갈등_남편	-.289	.075	-.301***	-.492	-.175	-.063
자기분화_아내	→ 부부갈등_아내	-.228	.062	-.236***	-.378	-.089	
자기분화_남편	→ 건설적 의사소통_남편	.793	.196	.361***	.098	.522	.201
자기분화_아내	→ 건설적 의사소통_아내	.370	.212	.152	-.072	.352	
자기분화_남편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편	-1.289	.192	-.543***	-.655	-.429	-.283*
자기분화_아내	→ 역기능적 의사소통_아내	-.675	.221	-.260**	-.447	-.010	
건설적 의사소통_남편	→ 부부갈등_남편	.043	.032	-.098	-.028	.243	.085
건설적 의사소통_아내	→ 부부갈등_아내	-.072	.029	-.183*	-.371	.036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편	→ 부부갈등_남편	.185	.034	.457***	.304	.609	.005
역기능적 의사소통_아내	→ 부부갈등_아내	.177	.029	.452***	.285	.563	
상대방효과							
자기분화_남편	→ 부부갈등_아내	.044	.074	.044	-.143	.195	.093
자기분화_아내	→ 부부갈등_남편	-.074	.063	-.079	-.236	.058	
자기분화_남편	→ 건설적 의사소통_아내	.834	.217	.334***	.169	.483	.381*
자기분화_아내	→ 건설적 의사소통_남편	-.102	.192	-.047	-.256	.160	
자기분화_남편	→ 역기능적 의사소통_아내	-.590	.216	-.234**	-.384	-.070	-.281*
자기분화_아내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편	.109	.188	.047	-.166	.165	
건설적 의사소통_남편	→ 부부갈등_아내	.005	.031	.010	-.100	.135	-.219*
건설적 의사소통_아내	→ 부부갈등_남편	-.080	.028	-.209**	-.360	-.035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편	→ 부부갈등_아내	-.072	.029	.183**	.085	.388	.186*
역기능적 의사소통_아내	→ 부부갈등_남편	-.001	.030	-.003	-.166	.150	

주. N=127. * $p < .05$, ** $p < .01$, *** $p < .001$.

상대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Delta\beta = .381, p < .05$).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23, p < .01$), 아내의 자기분화는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한 상대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beta = .05, p > .05$), 이들의

효과크기 차이는 유의하였다($\Delta\beta = -.281, p < .05$).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상대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beta = .010, p > .05$),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이 남편의 부부갈등에 이르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09, p < .01$). 이들의 효과크기

기 차이는 유의하였는데($\Delta\beta = -.219, p < .05$), 다른 관계와는 달리 남편이 아내에게 미치는 효과크기에 비해 아내가 남편에게 미치는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상대방효과가 유의하였고($\beta = .183, p < .001$), 아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beta = -.003, p > .05$),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Delta\beta = .186, p < .05$).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효과에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자기분화가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자기효과와 아내의 자기분화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자기효과는 모두 유의하였고($\beta = -.58, 95\% \text{ CI} = -.71, -.45$; $\beta = -.38, 95\% \text{ CI} = -.50, -.21$), 남편의 자기효과가 아내의 자기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Delta\beta = -.20, p < .05$). 상대방효과에서는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상대방효과는 유의한 반면($\beta = -.24, 95\% \text{ CI} = -.44, -.07$), 아내의 자기분화가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상대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beta = -.09, 95\% \text{ CI} = -.27, .04$), 상대방효과 크기의 성차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Delta\beta = -.15, p > .05$).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간의 자기효과에서 직접효과와 의사소통을 매개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자기효과에서 의사소통을 매개한 간접효과와 이를 매개하지 않은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고(간접효과 = $-.28, 95\% \text{ CI} = -.39, -.19$; 직접효과 = $-.30, 95\% \text{ CI} = -.49, -.18$), 아내의 자기효과에서도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간접효과 = $-.14, 95\% \text{ CI} = -.28, -.03$; 직접효과 = $-.24, 95\% \text{ CI} = -.38, -.09$). 이러한 결과는 자기분화가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의사소통이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의미한다. 한편,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부부갈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서 의사소통을 매개한 간접효과는 유의하고(간접효과 = $-.28, 95\% \text{ CI} = -.39, -.16$),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직접효과 = $.04, 95\% \text{ CI} = -.14, .20$), 이는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소통이 완전매개함을 의미한다. 아내의 자기분화가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전체효과, 의사소통을 매개한 매개효과 및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상대방효과의 직접효과에서는 성차가 없었으나, 간접효과에서는 남편의 자기분화가 의사소통

표 3.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전체효과, 직접효과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한 간접효과

효과	예측변인	준거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자기효과	자기분화_남편	→ 부부갈등_남편	-.58 (-.71, -.45)	-.30 (-.49, -.18)	-.28 (-.39, -.19)
	자기분화_아내	→ 부부갈등_아내	-.38 (-.50, -.21)	-.24 (-.38, -.09)	-.14 (-.28, -.03)
차이($\Delta\beta$)			-.20*	-.06	-.14
상대방효과	자기분화_남편	→ 부부갈등_아내	-.24 (-.44, -.07)	.04 (-.14, .20)	-.28 (-.39, -.16)
	자기분화_아내	→ 부부갈등_남편	-.09 (-.27, .04)	-.08 (-.24, .06)	-.01 (-.14, .07)
차이($\Delta\beta$)			-.15	.12	-.27*

주. N=127.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계수 값임. ()안의 값은 95% 신뢰구간임.

을 매개로 아내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아내의 자기분화가 의사소통을 매개로 남편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Delta\beta=-.27, p<.05$).

표 3에서 산출된 간접효과는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모두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경로가 유의한 변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남편의 자기분화가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간접효과=-.16, $z=-3.25, p<.01$), 마찬가지로 아내의 자기분화가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간접효과=-.12, $z=-2.73, p<.01$). 이에 더하여, 남편의 자기분화와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인 혼합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07, $z=-2.29, p<.05$).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

향은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 및 아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각각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07, $z=-2.17, p<.05$; 간접효과=-.06, $z=-2.09, p<.05$; 간접효과=-.11, $z=-2.49, p<.05$).

논 의

본 연구는 부부의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및 이들 관계에서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와 성차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부 127쌍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 주요 결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자기분화와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자기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우선,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분화가 낮을수록 부부갈등은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분화와 부부갈등과의 부적 관련

표 4.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한 개별 매개효과

효과	예측변인	매개변인	준거변인	매개효과	Sobel's z
자기효과	자기분화_남편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편	→ 부부갈등_남편	-.16	-3.25**
	자기분화_아내	→ 역기능적 의사소통_아내	→ 부부갈등_아내	-.12	-2.73**
혼합효과	자기분화_남편	→ 건설적 의사소통_아내	→ 부부갈등_남편	-.07	-2.29*
상대방효과	자기분화_남편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편	→ 부부갈등_아내	-.07	-2.17*
	자기분화_남편	→ 건설적 의사소통_아내	→ 부부갈등_아내	-.06	-2.09*
	자기분화_남편	→ 역기능적 의사소통_아내	→ 부부갈등_아내	-.11	-2.49*

주. N=127. * $p<.05$, ** $p<.01$, *** $p<.001$

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종원, 옥선화, 2015; 이해경, 이은희, 2011; 한영숙, 2007; Miller, et al., 2004; Peleg, 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분화가 높은 사람은 사고와 감정이 균형 잡혀 있고 자율성과 연합성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부부갈등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자기분화가 낮은 사람은 사고와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감정반사적으로 행동하고, 융합된 관계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부부갈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간의 부적 관계에서 남편의 자기효과는 아내의 자기효과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비해서 자기 자신의 자기분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남편의 자기분화와 결혼만족 간의 관계가 아내의 자기분화와 결혼만족 간의 관계에 비해 효과크기가 더 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정숙, 2008; 나남숙, 이인수, 2017)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며,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사이에는 유의하지만 낮은 수준의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해경, 이은희, 2011; 한미향, 1999)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역할 사회화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데, 낮은 자기분화로 배우자와 지나치게 융합되어 있는 상태는 관계중심적으로 사회화된 아내에 비해서 과업중심의 남편에게는 더 부담스럽고 갈등을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효과에서의 성차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자기분화가 자신의 건설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아내의 자기효과에 비해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도 사회화 과정과 연결하여 이해

할 수 있는데, 여성의 의사소통은 자기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나 교육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습득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설 2에서는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간의 상대방효과가 있고, 이들 관계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해 남편이 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남편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아내는 부부갈등을 낮게 지각한 반면, 아내의 자기분화 수준은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자기분화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반면 아내의 자기분화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선행연구(남궁임, 2009; 신현정, 2017)와 유사한 결과이다. 남편이 감정반사행동을 하고 정서적으로나 관계에 융합되어 있을 때 아내는 생활 전반에서의 갈등을 많이 지각하는데, 이는 관계중심적으로 사회화되고 또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권력이 적은 아내가 남편의 정서나 행동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반응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남편은 과업중심적으로 사회화되고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아내의 자기분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부부갈등에 미치는 효과 크기와 아내의 자기분화가 남편의 부부갈등에 미치는 효과 크기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위에서 언급한 해석은 잠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설 3에서는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지지

되었다. 우선,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 자기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이는 자기분화가 높은 사람은 감정과 사고를 구분하여 감정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 요구-철회, 회피와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하여 부부갈등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기분화가 낮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경멸, 상처, 비난, 거부감 등을 보다 예민하게 지각하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분화가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김정숙(2008)의 연구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신의 부부갈등과 정적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황민혜와 고재홍(2010)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기혼여성의 자기분화와 결혼만족의 관계를 부부 의사소통이 매개한다고 보고한 김향순 등(201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 자신의 건설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상대방효과 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의 결과이며, 자기분화와 건설적 의사소통 및 건설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 간의 단순 상관은 유의하였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와의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본 연구 결과는 자기분화가 건설적 의사소통에 비해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김정숙(2008)의 연구나 부부갈등이 건설적 의사소통에 비해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황민혜와 고

재홍(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분화가 높을 때 부부갈등이 적다고 지각하게 되는 이유가 스스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함께 해결책과 타협안을 모색하는 건설적 의사소통 때문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비난, 요구-철회, 회피와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간의 관계를 배우자의 의사소통이 매개하는 혼합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아지고, 이를 통하여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혼합효과가 보고되기도 했는데,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미정과 조영주(2017)는 여성의 성인애착은 남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여성이 지각한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남편과 아내의 특성이 순환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부부간 상호작용이 복잡적으로 일어남을 의미한다(김미정, 조영주, 2017).

가설 4에서는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부부갈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및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즉, 남편의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낮는데, 이는 남편이 건설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해서

가 아니라 남편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덜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편의 자기분화가 높을 때 아내가 건설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하고, 비난, 요구·철회 및 회피와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덜 사용함으로써, 아내는 부부갈등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자기분화가 배우자의 건설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김정숙(2009)의 연구와 유사하다.

남편의 자기분화와 아내의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이는 남편이 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을 설명하지 못한 반면,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은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상대방효과에서의 성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결과가 남편이 아내에게 영향을 미친 반면, 위의 결과는 아내의 특성이 남편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남편이 보고한 자신의 건설적 의사소통이 관계중심적으로 사회화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권력을 가진 아내에게는 충분히 건설적인 의사소통으로 지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은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적 관련이 있었고, 이는 행복한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이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Gottman과 Levenson(2000)의 주장과 연결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개의 경우 관계 중심적이며 부부관계에서 권력의 열세에 있는

부인은 남편의 특성이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민감하고 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본 연구에서도 남편의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반면, 아내의 자기분화는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이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높은 반면, 아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남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황민혜와 고재홍(201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 임상적 의의와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세대 가족체계 이론에서는 부부의 자기분화 수준이 낮으면, 감정반사적 태도를 보이고 지나친 융합으로 인한 부담감을 가지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생길 수 있고, 자기분화는 의사소통을 매개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으나(Kerr & Bowen, 2005), 이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이들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적용하여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부부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고 자기분화,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도 자기효과와 함께 상대방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여 부부갈등에 대한 자신의 자기분화와 의사소통의 기여도 및 배우자의 자기분화와 의사소통의 기여도를 살펴봄으로써 부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와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묶어서 한 번에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세분화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의 성차를 검증함으로써 성차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도 의의를 가진다. 연구 결과, 상대방효과에서 전반적으로 남편의 특성이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반면, 아내의 특성이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이러한 결과를 성역할 사회화 및 사회구조적 이론과 연결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임상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부부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 상담 장면에서 자신과 배우자의 자기분화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기분화가 남편과 아내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서, 본 연구 결과는 건강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부부의 자기분화 수준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김명선(2018)은 Bowen의 자기분화 개념을 접목한 부부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들이 부부갈등을 줄었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자기분화,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 대체적으로 상대방효과에 비해서 자기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상담을 받는 부부는 많은 경우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보다는 상대방에게서 찾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Gottman & Silver, 2002). 부부갈등을 줄이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위해서 부부갈등에 자신이 기여하는 바를 교육하고 탐색하도록 하고, 자기 자신의 자기분화를 증진시키고 자신의 건설적 의사소통을 높이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줄임으로써 부부갈등을 줄이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기분화,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 간의 상대방효과에서 남편의 특성이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내의 특성의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아내의 특성이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과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부적 관계에서 나타났다. 부부는 자신의 특성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인식하고, 배우자를 돕고 배려하며 관계를 보살피는 태도로 자신의 자기분화와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배우자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남편의 경우는 비난, 요구, 철회 및 회피와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아내의 경우는

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별에 따라 다른 방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위에서 기술한 점들은 부부갈등을 호소하며 부부상담을 받는 내담자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부부갈등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예비부부교육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은 학습이나 수련을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고(Olson, Founier, & Druckman, 1982),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입증되기도 하였다(공성숙, 2004; 모의회, 2002; 최정란, 2014), 이에 더하여, 김명선(2018)이 부부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제안한 것처럼 Bowen의 자기분화 개념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이와 같은 학문적, 임상적 의의를 가지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있고 이들 제한점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함께 기술하겠다. 첫째, 연구의 대상자를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부로 제한하였고, 결혼기간이 20년 미만이며 연령도 20대에서 40대로 집중되어 있어 표집의 제한을 갖는다. 또한, 자료의 수집은 연구자의 지인을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을 한 임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부부 혹은 커플 연구에서 종종 사용되는 표집 방법이지만(김미정, 조영주, 2017; 황민혜, 고재홍, 2010), 연구 결과를 전체 부부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변수는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 방어기제, 피험자의 반응 편향 등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특히, 부부갈등이나

역기능적 의사소통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 솔직하게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방법 이외에 면담, 관찰 등의 방법으로 연구의 객관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기분화,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은 동일 시점에서 측정된 것으로 자기분화가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거나,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인과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단 연구나 실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자기분화,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은 다양한 하위변인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자기분화는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및 정서적 융합을 포함하며, 의사소통은 건설적 의사소통, 상호 손상적 의사소통, 요구-철회 및 상호 회피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고,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공성숙 (2004). Gottman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12(2), 141-171.
- 권정란, 이인수 (2006).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적응.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35-56.
- 김명선 (2018).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적 부부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자기분화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조영주 (2017). 미혼 커플의 성인애착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263-288.
- 김정숙 (2009). 부부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갈등대처행동, 의사소통 유형의 매개효과와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순, 김순덕, 구명이 (2014). 기혼여성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159-176.
- 나남숙, 이인수 (2017). 자기분화, 결혼만족도, 헌신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적용. 가족과 가족치료, 25(1), 115-136.
- 남궁임 (2009). 자기분화 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석진, 조현주 (2015).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 213-233.
- 모의회 (2002).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 훈련을 통한 부부적응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2), 45-73.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지은 (2011). 부부의 자기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대처방식에 관한 배우자 의사소통의 영향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정 (2017). 부부의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여진 (2015). 중년기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어항숙 (2016). 부부의 원가족건강성, 자기분화, 의사소통, 그리고 자녀의 정서지능에 대한 연속적 인과관계 분석. 인문사회 21, 7(3), 415-436.
- 이미숙 (2010). 국제 결혼한 남편의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 (2002). 부모간의 갈등과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이종원, 옥선화 (2015).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부부갈등 관련변인 연구: Bowen과 Satir 모델의 이론적 연계성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2), 3-25.
- 이주연, 정혜정 (2009). 노년기 부부의 자기분화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4), 1629-1644.
- 이혜경, 이은희 (2011).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갈등대처행동과 부부갈등의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22(3), 43-68.
- 정현숙 (2009).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의사소통 및 성적친밀감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정, 조은경 (2007).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15(1), 19-46.
- 조영주 (2017). 미혼 커플의 비난 및 철회 의

- 사소통에서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3), 417-443.
- 최규련 (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정란 (2014).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모델의 사소통훈련 결혼준비교육이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친밀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 22(3), 229-251.
- 한미향 (1999).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숙 (2007).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59-272.
- 황민혜, 고재홍 (2010). 부부간 결혼가치관 차이, 오해 및 부부갈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79-80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Caughlin, J. P., & Scott, A. M. (2010). Toward a communication theory of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interac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 W. Smith & S. R. Wilson (Eds.), *New direction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research* (pp. 180-200). Los Angeles, CA: Sage.
- Christensen, A., & Heavey, C. L. (1990). Gender and social structure 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1), 73-81.
- Christensen, A., & Sullaway, M. (1984). *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Coleman, J. C. (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Indianapolis: The Bobbs-Merrill.
- Cumming, G. (2009). Inference by eyes reading the overlap of independent confidence intervals. *Statistics in Medicine*, 28(2), 205-220.
- Glick, I. D., & Kessler, D. R. (1980). *Marital and family therapy*. New York: Grune & Stratton.
- Gottman, J. M., & Levenson, R. W. (1988). The social psychophysiology of marriage. In P. Noller & M. A. Fitzpatrick (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pp. 182-200). Clevedon, UK: Multilingual Mastters.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3), 737-745.
- Gottman, J. M., & Silver, N. (2002).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 (임주현 역). 서울: 문학사상. (원전은 1999에 출판)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New York: Guilford Press.
- Kerr, M. E. & Bowen, M. (2005).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8에 출판).
- Miller, B. R., Anderson, S., & Keala, D. K. (2004). Is Bowen theory valid? A review of basic research.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0(4), 453-467.
- Nichols, M. P., & Schwartz, R. C. (2001). *The*

- essentials of family therapy*. Boston: Allyn and Bacon.
- Olsen, D. H., Fournier, D., & Druckman, J. (1982). *Enrich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Peleg, O. (2008). The relation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arital satisfaction: What can be learned from married people over the course of lif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6(5), 388-401.
- Pietromonaco, P. R., Greenwood, D., & Barrett, L. F. (2004). Conflict in adult clos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perspective. In W. S. Rholes and J. A. Simpson (Eds.) *Adult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pp. 267-299). New York: Guilford Press.
- Satir, V. (1999). 아름다운 가족. (나경범 역). 서울: 창조문화. (원전은 1988년에 출판)
- Skowron, E. A., & Friedlander, M. L. (1998).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235.
- Thomas, G., & Fletcher, G. J. O. (2003). Mind-reading accuracy in intimate relationships: Assessing the roles of the relationship, the target, and the ju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6), 1079-1094.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1차원고접수 : 2018. 07. 24.
심사통과접수 : 2018. 08. 30.
최종원고접수 : 2018. 12. 19.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n Marital Conflict among Married Couples: The Mediating Effects of Constructive an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h Young Kim

Bucheon Girls' Middle School

Young-ju Cho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actor effects and the partner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n marital conflict,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constructive an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mong these relationships. To analyze the data from 127 married couples, path analyses applying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tor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n marital conflict were negatively significant for both husband and wife. Second, the partner effect of husband's self-differentiation on wife's perceived marital conflict was negatively significant, while the partner effect of wife's self-differentiation on husband's perceived marital conflict was not significant. Third, the actor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n marital conflict were mediated by one's own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ut not by one's own constructive communication for both husband and wife. Fourth, there was mixed effect and the effect of husband's self-differentiation on husband's perceived marital conflict was mediated by wife's constructive communication. Fifth, the partner effect of husband's self-differentiation on wife's perceived marital conflict was mediated by husband'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wife's constructive communication and wife'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included.

Key words : self-differentiation, marital conflict, constructive communication,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ctor effect, partner effect,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mediating effect